

지역 소식통

고창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군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을 이달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받는다.

모두 9명이 일하게 되는 사업은 다문화이해강사파견, 주정차질서계도, 도시공원미관조성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34세이하 청년과 노숙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65세 미만은 주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강소농

농업경영체 교육생 모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김종주 소장)는 부안의 농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2년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소농(強小農)이란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2022년 강소농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농가 역량진단과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및 현장컨설팅 등 교육기간 중 총 10회 이상의 단계별 교육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영농규모가 전업농 이하인 중소규모 가족농이면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의지가 강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중 50명 내외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희망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충전편의 제공 효과 기대

부안군,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폭 확대 대기환경 개선 앞장

부안군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들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및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운영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에 기여했다.

실제 부안군 전기자동차는 지난 2017년 18대에서 2021년에는 139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충전편의 제공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7년 8월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2018년 29면, 2019년 25면, 2020년 51면, 2021



년 59면 등 민선7기 들어 무려 154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162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한 계획이다. 이중 급속충전소는 51면 완속충전소는 111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안읍 자연마당·

사회복지회관·매창공원, 행안면 스포츠프리클, 변산면 누에타운·변산해수욕장·모항해수욕장·물소리휴게소·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분소·고사포아영장·변산자연휴양림, 보안면 청자박물관, 줄포면 줄포생태공원·줄포면사무소, 계화면 계화면사무소, 하서면 새만금환경생태옹지, 백산면 백산면사무소 등 18개소에 34면의 급속충전소를 설치했다.

부안읍 상설시장 주차장(2면)과 하서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주차장(4면)에도 충전소가 설치 중이다.

앞으로 군은 설치된 지 5년이 경과된 노후 충전소를 초 급속 충전소 교체 등으로 충전시간 단축을 통해 전기자동차 소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어르신 잘 섬기는 효자도시로 뜬다

노인 분야 예산 지난해 대비 8.6% 증액한 786억원 투입

고창군이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으로 어르신을 섬기는 행복한 효자도시로 뜨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노인분야 예산은 78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6%가 늘었다. 지역 노인인구는 1만 9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5%에 달해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매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1만6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해 노인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연금대상자와 지급액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 확대된다. 고창 북분지가 팔을 이용한 진땀을 제조 판매하는 '복분이땀 땀 사업단',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자립사업단' 등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효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고창고령자복지주택 사업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고령자복지주택은 128호(8평형 56호, 10평형 72호)가 들어선다. 1층에는 어르신 사랑방과 체력단련실 등도 마련된다.

코로나19시대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 생활

지원사가 고창군내 2272명의 어르신에게 주1~2회 찾아가 인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인심서비스를 도입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100세 장수어르신 만수무강' 축하사업도 속도를 낸다.

그간 2019년부터 모두 33명(2019년 4명, 2020년 16명, 2021년 13명)의 100세 장수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축하하고 장수 생활을 이어나 가족들과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는 30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장애인·노인에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

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

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해 올해 약 12억 2,800만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정읍시, 12억2800만원 투입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정읍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해 올해 약 12억2,800만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재정지출 지원을 위해 총 8개 분야 7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공공산림 가꾸기 ▲덩굴류 제거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원 등이다.

모집공고 기간은 1월 5일부터 14일까지며,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정읍지

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분야별 응시 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여 대상자 선발 시 취업 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작업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월배 1일 임금은 7만3,28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키로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2개 공설시장의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매월 총 600여만원 정도 부과액에서 약 300여만원 정도를 감면해 연간 약 3,600여만원 정도가 감면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감면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작은 위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